

## 568년 동안의 한글, 568년 그 이상의 한글 — 홍윤표 한글박물관 개관위원장을 만나다



답변자: 홍윤표(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위원장)

질문자: 권창섭(아주대학교 강사)

때: 2014. 9. 5.

곳: 충남 천안시의 홍윤표 위원장 자택

2014년 10월 9일, 568돌을 맞는 한글은 올해 더욱 기쁜 생일을 맞을 듯하다. 이 날은 서울시 용산구에 건립된 한글박물관이 개관되어 처음으로 손님들을 맞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한글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의 문화 중 그 으뜸으로 한글을 꼽아 왔지만, 이러한 한글 관련 문화재와 유물들을 전문으로 관리하고 또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이 없었다는 것은 참 아쉬웠던 일이다. 이제 우리는 곧 그 갈증을 씻게 된다.

다섯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글이란 것은 이 땅에 산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또 앞으로 이 한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또 이 한글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박물관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한글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홍윤표 위원장을 만나 한글과 한글박물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권창섭**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덕이 참 편안해 보이고 좋습니다. 농장도 있다면서요?

**홍윤표** 그냥 채소들이랑 야생화랑, 나무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 일 년 동안은 바빠서 손도 못 대고 있었네요. 권 선생이 천안 도착하기 전까지도 농장에 있다가 왔습니다.

**권창섭** 서울에 언제 언제 올라오십니까?

**홍윤표** 특별히 고정된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있거나 꼭 올라가야 할 일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동중정(動中靜)이라고 할까요. 정신없이 바쁘긴 한데 돌아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보이네요.

**권창섭** 서예 모임에서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홍윤표** 한글의 서체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서예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 문헌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알고 있으니까 한글 문헌의 다양한 서체들을 소개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해 온 탓에 이제 별로 할 이야기도 없는데 계속 나와 달라고 해서 근근이 하고 있어요.

**권창섭** 진행 중이던 저작의 출간 작업도 여럿이었지요?

**홍윤표** 네. 계획하고 있고 또 작업 중인 것들이 많은데 지금으로선 너무 바빠서 진행이 되질 않네요. 한글박물관이 개관되고 나면 숨을 좀 돌릴 수 있을까요. 이미 책을 쓴 것들도 지금 교정지가 마구 쌓여 있고 그래요.

**권창섭** 어떤 책들인가요?

**홍윤표** 일단 어휘역사사전이 있고요. 3,500~4,000개 어휘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교정을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손도 못 대고 있네요. 일곱 명이 함께 작업한 일입니다.

**권창섭** 출판되면 국어사 공부하는 이들뿐 아니라 국어학 연구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네요. 양도 꽤 되겠는데요?

**홍윤표** 삼사 천 쪽 정도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권으로 나눠 나올 것 같고요.

**권창섭** 근대국어연구»는 개정판이 나오지 않나요?

**홍윤표** 출판사(태학사)에서 개정판을 내 달라고 말은 하는데 책을 내 봤자 출판사에 손해만 입힐 것 같아 주저됩니다. 요즘 워낙 책이 팔리지 않으니깐요. 개정판 원고를 꽤 쓰긴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권창섭** 근대국어연구»의 경우는 기다리는 이들이 많으니 개정판이 나오면 꽤 반응이 좋지 않을까요? 또 다른 책도 있습니까?

**홍윤표** 국어사 자료 강독서도 집필 중입니다. 기존에 나온 강독서들과는 다른 체제로 구성했습니다. 거의 다 썼어요. 국어사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결 자료는 또 어떤 것이 있고 구결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서지학적인 이야기도 조금 넣었고요. 문헌의 간년을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옛 문헌을 인용하는 방법 등도 신고 있습니다.

**권창섭** 폭넓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군요. 국어학 내적인 내용의 차이도 있습니까?

**홍윤표** 기존의 국어사 자료 강독서들이 해당 문헌에 나오는 어휘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에 그쳤다면 제가 쓰고 있는 책은 음운, 형태, 통사, 의미에 관련된 설명을 가능한 한 자세히 실으려 하고 있습니다.

**권창섭** 다들 얼른 출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책들이네요. 고어사전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홍윤표** 그건 집필하다가 말아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천자문(千字文)’류나 ‘자석(字釋)’류의 목록을 다 모은 후, 한자마

다 그 석(釋), 즉 뜻풀이를 어떻게 해 왔는지를 일람할 수 있는 책도 준비 중입니다. 가가령 ‘佳(가)’의 경우 ‘아름다울’로 된 것도 있고 ‘도홀’로 된 것도 있던 말이죠. 문헌별로 시대별로 다 그 석(釋)이 다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국어사 자료인 셈이죠.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한자의 ‘석음(釋音)’을 통한 새로운 연구 주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300여 종의 문헌들 중에서 아직 입력이 채 안 된 것도 있고, 또 한자 자체가 폰트가 없어서 입력이 곤란한 것들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보직들이 끝나고, 특강하고 있는 것들도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일단 이 일에 매진하려 합니다. 이 밖에도 작업을 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아직 출판을 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도 될까요?

**권창섭** 물론이죠, 선생님. 무엇입니까?

**홍윤표** 지금 한국의 한자들의 경우 그 표준 석(釋)과 표준 음(音)이 없어요. 가령 제 이름에 있는 ‘杓’의 경우 어떤 책에서는 그 음이 ‘표’이고 어떤 책에서는 ‘작’이라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글자가 한두 글자가 아닙니다. 이들에 대해서 표준이 되는 음(音), 그리고 석(釋)을 제시하고 싶어요. ‘杓’의 경우, 음(音)도 여럿이지만 석(釋)도 그렇거든요? 어디에서는 ‘나무죽’이고 어디에서는 ‘북두칠성자루’입니다.

더 큰 문제는 ‘杓’, 이 글자 석(釋)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권창섭** ‘후박나무’ 아닙니까?

**홍윤표** 그렇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杓’을 찾으면 그 석(釋)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석(釋)입니다. 그 ‘후박나무’란 석(釋)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일본의 석(釋)이지요. 우리의 석(釋)은 ‘순박할’, ‘숫될’ 등입니다. 이런 걸 바꿔야 해요. 표준이 되는 한자의 음과 석을 만들어야죠. 이 작업을 수십 년

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명(物名)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권창섭** 정말 여러 방면에서 연구와 집필을 하고 계시네요. 특히 한자의 음(音)과 석(釋)을 정비하는 작업은 언중의 실제 언어생활과 매우 밀접히 닿아 있는 작업인 듯합니다.

**홍윤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국어학계는 언중과 멀어지겠지요. 학문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 및 문화와 연계되어야 하거든요. 언중이 국어학 분야 중에서도 방언학에 왜 관심이 많겠어요? 자신들의 생활 및 문화와 관련되니까 그런 것이지요.

또 국어사에서 모음 체계나 자음 체계가 변했다고 해서 언중이 언어가 변화했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휘가 변할 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어휘는 언어 외적인 것들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많다 보니 연구를 잘 하질 않거든요. 구조주의라고 하면서 언어 외적인 것을 배제하고 언어 내적인 것들 사이의 관계들만 이야기합니다. 정작 언어는 언어 외적인 사회, 문화, 정치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언어 내적인 것들로만 오밀조밀 이야기한다고 그게 구조주의이겠습니까?

**권창섭** 연구를 시작하던 때부터 가진 생각이십니까?

**홍윤표** 그렇진 않아요. 젊을 때는 근대국어, 격조사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아,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처럼, 한글, 한자, 어휘, 언어 정보화 등 이런 쪽으로 오게 된 것이지요. 갈수록 다양한 분야, 그리고 필요하다 싶은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되었지요.

## 삶 속에 녹아 있는 한글, 이를 느낄 수 있는 한글박물관

**권창섭** 한글박물관 개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한글박물관

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0월 9일 한글날에 개관하는  
가요?

**홍윤표** 개관식은 10월 8일에 하고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10월 9  
일입니다. 한글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일단 한글에 대해서 간  
략히라도 이야기해야겠죠? 일단 저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문화적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적 기능,  
마지막 하나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경제적 기능  
도 추가할 수 있겠고요.

**권창섭**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윤표** 첫째 문화적 기능이란 건 당연한 것이지요. 언어를 통해서 소  
통을 하고, 소통을 통해서 협동을 하고, 협동을 통해서 문화를 창조하  
고 발달시켜 나가니까, 세계의 모든 문자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권창섭** 그럼 다른 두 기능은 한글이 가진 특수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  
네요.

**홍윤표** 중국에 잠시 갔을 때 소수 민족 대표들끼리 백두산에 갈 기회  
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몽고족 대표로 오신 분이 자꾸 저에게 접근을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몰라서 자꾸 뒤로 빼다가 마침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러자 그 내몽고족 대표가 하는 말이, 한국 민족은 행복한 것이라고 하더  
군요. 그래서 제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반문  
했습니다. 몽고의 경우는 내몽고가 있고 외몽고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쪽 모두 몽고어로 말하지만 내몽고는 한자로 표기하고 외몽고는 키  
릴 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의사소통이 되겠지만, 만나지 않  
고 문자로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한(恨)이라는 겁니

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남이건 북이건 심지어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 들도 모두 같은 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민족적 기능이라 할 수 있지요.

**권창섭** 사회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홍윤표** 민족적 기능이 민족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면 사회적 기능은 사회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계층에 따라 알파벳을 더 사용하는 계층, 한자를 더 사용하는 계층이 있겠지만 모든 계층이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자는 한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겠지요.

**권창섭** 한글박물관이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가진 한글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겠군요.

**홍윤표** 네. 이러한 중요한 기능들을 가진 한글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를 보여 주는 박물관이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사실 제가 이러한 박물관의 필요성을 예전 부터 역설해 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글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제가 직접 구상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기각된 적도 있었고요.

**권창섭** 그게 언제쯤인가요?

**홍윤표** 이어령 선생이 문화부<sup>1)</sup> 장관일 때입니다.

**권창섭** 노태우 정권일 때로군요.

**홍윤표** 차후에 한글실이 조그마하게 생기긴 했지만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온라인으로라도 박물관을 먼저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사이버 한글박물관입니다. 이것이 다시 디지털 한글박

---

1) 차후 문교부, 문화체육부를 거쳐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로 통합된 행정부 부처. 이어령 선생이 초대 장관을 역임하였다(1990. 1.~1991. 12.).

물관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고요. 그때 연구 책임자를 맡긴 했지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금방 그만 두긴 했습니다.

그러다 독립된 한글박물관을 만든다고 저더러 개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고사한 뒤에 결국 맡게 되었습니다. 만 제가 강력하게 무엇을 주장한다거나 의견 표명을 뚜렷이 한다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따름이지요.

**권창섭** 한글박물관의 개관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홍윤표** 한글의 발달을 통해 문화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겠지요. 한글 문화를 통해서 우리 문화, 우리 사회를 발달시키는 역할, 또 지금까지의 그 발달을 돌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권창섭** 박물관이 새로 개관한다고 하면 당연히 주로 어떤 물품들이 전시되는지를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명칭부터 한글박물관이다 보니 주로 한글로 쓰인 고문헌 자료들이 먼저 생각나는데, 이외에 어떤 물품이나 자료들의 전시가 예정되어 있나요?

**홍윤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한글 창제 후 한글의 사용층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여자와 중인 및 서민들 일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암클, 중클 같은 명칭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권창섭** 사대부들과 고위층 양반들도 사용했을 것이란 말씀이시죠?

**홍윤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화의 기득권층이 한글을 쓰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한글이 절대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권창섭** 실제로 왕들도 편지나 서간들은 한글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정조의 어릴 적 한글 편지가 화제가 된 적도 있고요. 왕들도 이렇게 한



글을 즐겨 사용했으면 사대부들 역시 마찬가지였겠네요.

**홍윤표** 그렇습니다. 암클이니 중클이니 하는 표현들은 일제 강점기의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권창섭** 한글을 격하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지요?

**홍윤표** 그렇지요. “석학 인문 강좌”란 곳에서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향신문에서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표제가 “한글을 하류 계층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다는 억측은 불식돼야”였는데 바로 이 말로 제 의견을 요약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 한글을 만든 것은 세종이지만 그것이 백성들에게 널리 전파된 데에는 불교계의 공헌이 매우 큽니다. 종교의 역할이 매우 크죠. 물론 한글이 워낙에 쉽다 보니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요.

한글, 훈민정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세종만 추앙합니다. 물론 세종이 뛰어난 학자였고 뛰어난 문자를 만들었으니 으뜸으로 이야기해야겠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한글을 위해 힘썼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한글박물관에 가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일 겁니다.

사대부와 왕족들의 글과 글씨뿐 아니라, 서민들이 생활에서 사용한 여러 글, 여러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기왕의 한글 전시회나 이런 경우 들에서는 임금이나, 혹은 명필로 알려진 사대부들의 글 위주로 전시되었잖아요? 그런 것들만 전시해 놓으면 관람하는 사람들은 거리감을 느끼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실제로 사용했을 법한 모양의 여러 유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유도를 하긴 했는데 반응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기대는 크고 준비 기간은 짧았고 또 공간이 좁아서 걱정이 됩니다.

**권창섭** 유물은 많은 편인가요?

**홍윤표** 한글의 역사가 근 600년 가까이 되긴 하지만, 한글이 우리 생활사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은 실지로 이제 한 세기가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유물이 많을 수가 없지요. 관람하시는 분들의 기대는 큰데 유물들이 적어서 실망을 할까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권창섭** 그럼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런 유물들 중 책이나 문서처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윤표** 한글이 쓰인 돌이라든가, 향아리, 부적, 악보, 기왓장, 다듬잇돌 등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서 소장하시던 것 외에도 여러 곳에서 수집해서 전시를 하나 보군요?

**홍윤표** 저는 원래 저 개인적으로라도 한글박물관을 만들고픈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골동품상에서 볼 때마다 사서 모아 두었습니다. 그러다 곧 개관할 한글박물관이 기획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글 자료와 유물을 수집하는데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 유물 중에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생활용품들도 전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자 그때부터 수집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의 값이 많이 뛰었습니다.(웃음)

**권창섭**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몇 개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홍윤표** 이게 무언지 아시겠어요? 이름이 분판인데 지금의 칠판과 같은 구실이지요. 글씨 연습한 흔적입니다. 글씨를 쓰고 물로 지울 수 있도록 기름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담뱃대에 한글이 쓰여 있는 것이네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권창섭** 정말 선생님께서 소장한 것만으로도 작은 박물관을 꾸릴 수 있었겠네요.

[그림 1] 글씨를 연습하던 분판과 한글이 쓰여 있는 담뱃대



**홍윤표** 이런 것들이 더 재밌는 자료들이죠. 종이로 된 책이나 문서들보다 이런 것들을 관람하는 이들이 더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권창섭** 이런 자료들이 한글이 민중의 삶에 미친 영향들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겠네요. 문자가 단순히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홍윤표** 그럼요. 옛 유물들을 보다 보면 여러 지혜들도 엿볼 수 있어요. 옛날 책들은 간혹 각 면의 바깥쪽 하단에 여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창섭** 아! 손으로 종이를 넘기는 부분이어서 쉽게 닳는 부분이라 그런 것이로군요.

**홍윤표** 그런데 이런 것이 있는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책본(貫冊本)입니다. 과거에 책을 필사(筆寫)해서 빌려주던 세책업(貫冊業)이란 것이 있었어요.

**권창섭** 지금으로 치면 도서 대여점 같은 셈이로군요. 그러다 보니 그런 책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홍윤표** 그래서 그 부분이 쉽게 닳게 되니 글자를 빼놓은 것이지요.

**권창섭** 종이가 귀한 시절의 문화와 그 시절의 지혜를 볼 수 있네요.

**홍윤표** 선조들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권창섭** 선생님께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 한글박물관이 참 기대가 되네요.

**홍윤표** 박물관이 재밌으면 얼마나 재미가 있겠느냐마는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유물들을 보고 상상을 해 보면 많은 재미가 생기겠지요. 그리고 콘텐츠들을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한 한글 악보 같은 경우, 악보만 보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 악보에 적힌 것을 실제로 귀로 들을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이런 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섭** 전시 외의 다른 콘텐츠들도 준비되고 있는지요? 가령 교육 사업이라든가 말이죠.

**홍윤표** 아직입니다. 일단 전시관이 상설 전시관과 특별 전시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특별 전시관은 일단 세종을 주제로 개관 특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한글에 관한 것뿐 아니라 문화, 국방 전반적인 것을 다룰 거예요.

**권창섭** 다른 국가 혹은 다른 문자권에도 이렇게 문자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있습니까?

**홍윤표** 문자 박물관이 있긴 있습니다. 알파벳 박물관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고 한자 박물관이 중국에 있다고 하는데 둘 다 가보지는 못했습

니다. 그래도 지금 개관하려 하는 우리 한글 박물관과 같은 취지와 목적의 박물관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훈민정음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시선

**권창섭** 한반도의 역사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 중 으뜸으로 훈민정음을 많이들 꼽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한글이 어떤 측면에서 우수한 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윤표** 한글날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곤 하지요. 저는 “한글이 우수하다”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수하다”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알파벳은 영어를 표기하는 데 가장 우수하고 가나 문자는 일본어를 표기하는 데 가장 우수한 것처럼 “한글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인 것이죠.

**권창섭**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로군요.

**홍윤표** 한글은 우수하기보다는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였고, 한글이 지금까지 사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의 장점 덕분이죠.

언어학적 측면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간편합니다. 한글은 점과 선과 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장 간단한 것의 조합으로 모든 글자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글자가 거의 한 음소와만 대응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나는 것이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sup>2)</sup>의 원리이고요. 세상에 이런 문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글자를 이루는 구성이 기하학적입니다. 하나의 네모 속에서 ‘가’의 경우는 좌우로 양분되고 ‘고’의 경우는 상하로 양분되지요. 중성이 있을 때에는 초중성과 중성의 글자가 양분되고요. 도형적, 기하학적으로 매우 뛰어납니다.

이러한 점들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고 또 쉽게 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선 훈민정음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홍윤표** 네. 훈민정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많이 해 보려 해요. 무엇부터 이야기할까요. 훈민정음 서문(序文)에서 ‘문자(文字)’라는 것을 흔히 ‘한자(漢字)’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곧 뒤에 ‘한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한자’라고 하지 않고 굳이 ‘문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문자’는 한문 구(漢文句)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문자 쓰고 았았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문자’란 말이지요.

**권창섭** 그렇다면 “나랏말싸미”과 “서르 스뵈디” 아니한 것은 ‘한자’가 아니라 그러한 한문 구란 말씀이시군요.

**홍윤표** 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편지에 “기체후일향만강(氣體候一向萬康)하옵시며 옥체무난(玉體無難)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저희 아버지도 “소년이노학난성(少年易老學難成)이니 일촌 광음불가경(一寸光陰不可輕)이라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이런 한문 구를 말하는 겁니다.

---

2) 중성을 위한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사용되는 글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훈민정음의 운용 원리. 가령 ‘각’의 초성과 중성은 모두 [k]로 소리가 같으므로 함께 ‘ㄱ’이라는 글자를 이용해 표기하는 것.

**권창섭**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것이죠?

**홍윤표** 훈민정음의 구성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국지어음(國之語音)”이라고 적은 뒤에 “나랏말싸미”가 나오고 그다음 다시 “이호중국(異乎中國)ᄃᆞᆫ야”가 적히고 그 뒤에 “뉥귀에 달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잘라 놓은 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대부들은 한문 구로 이어 읽었겠지요. “국지어음(國之語音)이 이호중국(異乎中國)ᄃᆞᆫ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즉 이것이 ‘문자’이고 “나랏말싸미 뉥귀에 달아”가 ‘정음(正音)’인 것이지요.

**권창섭** 계속해서 문제가 되던 표현인 “자방고전(字倣古篆)<sup>3)</sup>이란 문구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홍윤표** 지금까지는 전서(篆書)의 네모난 모양을 본떴다는 뜻으로 주로 해석들을 해 왔습니다. 전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습다. 그 방법이 스물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획법(加劃法)입니다. 거기에서는 가법(加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법(微加法)이 있고요. 미가법은 세로로 가획을 할 때에는 선을 줄이는 것입니다.

**권창섭** 그것은 한글의 가획법과 그대로 일치가 되네요.

**홍윤표** 그렇죠. ‘ㄹ’에서 ‘ㄴ’으로 가획할 때에나 ‘ㅎ’에서 ‘ㅇ’으로 가획할 때에는 짧게 가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서체의 미가법과 일치하는 것이지요.

**권창섭** 즉, 전서 그 자체를 본뜬 것이 아니라, 전서를 만드는 방법을 본떴다는 것이군요?

---

3) “글자는 옛 전서(篆字)를 본떴다”라는 뜻인데 이 문구의 해석을 놓고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많았다.

**홍윤표** 그렇죠.

**권창섭** 모음의 제자 원리도 새롭게 바라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모음은 천지인(天地人)의 모습을 상형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모음 역시 조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을 것이라 보시는 것이지요?

**홍윤표** 자음 역시 조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상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음도 마찬가지로 조음기관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ㆍ’는 원순성이 있는 모음이니까 입술의 둥근 모습을 ‘ㄱ’는 평순모음이니 입술이 퍼진 모습을 본뜬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진호 교수도 지적한 바 있는 ‘ㅣ’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후두가 열린 모습을 본뜬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음과 모음의 제자원리를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음이 천지인을 본뜬 것이라면 자음 역시 오행을 본뜬 것이라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ㄱ’은 ‘나무(木)’를 본떴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ㄱ’과 ‘나무’ 사이의 관계는 제자 원리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음과 천지인 사이 관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모음의 제자원리는 무엇인가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지요. 그 고민을 계속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권창섭** 훈민정음이란 텍스트 자체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훈민정음의 창제가 문자 생활의 측면뿐 아니라 생활 전반적인 측면 및 문화, 사회적인 측면 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홍윤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상승



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세종이 모든 백성들을 업그레이드한 셈입니다.

**권창섭** 격을 높인 것이로군요.

**홍윤표** 그럼요. 이처럼 격을 높인 데 또 힘쓴 사람들이 스님들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 중앙에서 석보상절과 같은 불경들을 중심으로 책들이 출간되지요. 그러나 지방에서 책이 나온 것은 몇 십 년이 지나 서입니다. 여기에는 스님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판목을 만들고 책을 찍고 불경을 통해 백성들에게 한글 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글박물관에도 제가 계획하여 제안을 하였는데 ‘창제 이전→창제→보급과 확산과 성장’ 순으로 둘러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보급과 확산’과 관련하여 ‘종교에서 한글로’라는 주제의 전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창섭** 조선이 개국할 때에 승유억불(崇儒抑佛)<sup>4)</sup>이라 하였음에도 한글 보급에는 불교 중심으로 가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글이 창제된 직후 처음 나온 책들도 불교 관련 서적들이고요.

**홍윤표** 승유억불, 억불승유라 하였지만 유교를 중심으로 한글을 보급하기 어려웠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의 경전들은 매우 엄격한 틀이 있어서 문구 하나라도 쉽게 바꾸어선 안 됩니다. 한문 원전을 쉽게 건드릴 수가 없으니 자유롭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를 통해 한글 보급을 하긴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칠서언해(七書諺解)<sup>5)</sup>를 보면 서체를 보면 판본이 똑같고 그 격식들이 매우 고정적입니다.

**권창섭** 반면에 불경들은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위주이다 보니 상대적

---

4)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른다.

5) 유교의 주요 경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을 한글로 언해한 책들.

으로 언해가 용이하고 자유로웠던 것이로군요.

**홍윤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가 널리 번지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경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이 가장 많이 읽혔던 듯하고 능엄경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경서이기 때문에 덜 읽혔던 것 같습니다. 같은 불경이라도 이본(異本)들이 많은 것들이 많이 읽힌 것이고 스님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공부했던 책이라 할 수 있지요.

## ‘안 됨’이 아닌 ‘됨’을 위한 어문정책이 되어야

**권창섭** 한편 한글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 전용을 해야 한다는 논의나, 고유어 어휘를 사용하고 한자어를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윤표** 문자의 가장 큰 목적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겠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문자를 보고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일 테고요. 그런데 한길은 없는 것이겠죠. 가령 같은 어휘라 할지라도 한자로 썼을 때 더 쉽게 이해하는 이가 있을 것이고, 한글로 썼을 때 더 쉽게 이해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연령에 따라 나뉘겠지요. 한글로 쓰는 것이 더 좋다, 한자로 쓰는 것이 더 좋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창섭** 더 우수한 표기법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홍윤표** 네. 어휘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어와 한자어 문제도, 고유어를 썼을 때 우리가 더 알아듣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고유어가 한자어와 뜻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글박물관에서도 유물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적느냐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한글박물관이니만큼 한글로만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설명이라는 것은 설명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은 한자를 병기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시대가 말을 해 줍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표기법이든 어휘 체계의 문제든 자연스레 변해 가는 것이지요.

**권창섭** 그게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겠지요?

**홍윤표** 언어는 자연물이니깐요. 변화하는 대로 뒤야겠죠. 물론 그 변화의 방향을 조절하는 방향타 역할은 있어야겠지만요.

가령 현재 우리의 문자 생활에서 ‘ㄱㄱ’나 ‘ㅈㅈ’ 같은 표현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 걸 왜 쓰냐고, 쓰지 말라고 해 보아야 소용없는 일이겠죠. 국어학 하는 교수들도 사담을 나누는 문자나 메일 등에서는 ‘ㄱㄱ’나 ‘ㅈㅈ’ 등을 쓰는 걸요. 문자에는 정서적, 감정적 의미를 담기가 힘든데 그걸 담으려는 노력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겠죠.

**권창섭** 언어 정책의 방향은 포용력을 더욱 넓히는 방향이 되어야 하겠군요.

**홍윤표** ‘안 돼’, ‘한자어 안 돼’, ‘이모티콘 안 돼’, ‘사투리 안 돼’ 등 ‘안 돼’ 중심으로 운동이나 정책의 방향을 잡아서 안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 혹은 어떤 것도 ‘해도 된다’와 같은 방향으로 해야지요. 가령 한글 전용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한글을 사랑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한자를 미워하는 목소리입니다. 갑순이를 미워하는 것이 영순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순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순이를 사

랑하면 될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중화사상을 벗어나기 위해 한자를 배격한다면 같은 논리로 알파벳들도 다 배격해야 합니다.

문자 생활 및 언어생활과 관련된 정책은 장구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단기에 무언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 언중의 사용 실태와 또 욕망들을 계속 조사해 나가고 그에 따라 수정해 나가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표준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자기네들 말이 표준어가 되면 좋을 것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네들 말이 표준어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느 지역의 말을 표준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권창섭** 각 지역의 말들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 방법이겠지요?

**홍윤표** 그럼 어휘가 풍부해지고 얼마나 좋아요?

**권창섭**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쳐내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왔었지요.

**홍윤표** 그러니까요. 그래도 슬슬 'XX의 잘못' 등으로 올라와 있는 방언 어휘들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북한에서는 방언 조사를 해서 각 방언 어휘들을 모두 문화어로 편입시키는 일을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죠.

**권창섭** 그래도 한국의 경우는 표준어나 맞춤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가능한 한 현실 사정에 맞도록 수정해 나가려는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닙니까? 2011년에 있었던 표준어 개정도 언중의 환영을 받았고요.

**홍윤표** 그렇긴 한데……. 전 '짜장면'을 복수 표기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글썩요. 언중들의 실제 발음이 [짜장면]이기에 표기도 '짜장면'을 허용한다면 'bus' 역시 '버스'뿐 아니라 '빼스'란 표기를 허용해야겠죠.

**권창섭** 영어의 어두 유성자음을 대개 경음으로 받음하니까요.

**홍윤표** 그런데 ‘짜장면’만 허용해 준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이지요. 바꾸려면 그것들도 바꾸어야죠.

## 함께, 넓게, 다양하게, 행복하게

**권창섭**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어 연구의 현황에 대해,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홍윤표** 언어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이 협동하고 상호 작용하는 자의적인 음성 기호의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국어학계에서는 그중 ‘자의적인 음성기호의 체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동하고 상호 작용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하지요. 이런 것들을 주변적인 국어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쪽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연구의 대상으로서 국어를 보다 넓게 볼 필요가 있겠지요. 남한의 국어, 북한의 국어, 그리고 다른 세계의 국어 중 남한의 국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한의 국어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서는 그 관심의 정도가 약합니다. 반쪽짜리 국어학인 셈이지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계층의 국어를 나누어 살필 필요도 있고요.

**권창섭** 이를 위해 당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홍윤표** 글썄요. 이런 방향의 연구가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일단 품이 많이 듭니다. 품이 많이 드는 일은 개인이 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힘 있는 기관에서 나설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국어 연구를 위한

힘 있는 기관이 딱히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담이지만 국어학 공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웃음)

**권창섭** 그런 날이 있을까요?(웃음) 다양한 방향으로 국어학 연구에 매진해 오신 선생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네요.

**홍윤표** 제가 지금과 같은 분야의 연구들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휘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언어의 기본 단위가 어휘이기 때문이죠. 언어의 기본 단위는 음성도 문장도 아닌 어휘입니다.

자료와 언어 정보화를 연구하게 된 데도 까닭이 있고요. 모든 학문은 자료와 이론, 그리고 실험이라는 세 요소로 굴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 연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반면에 자료를 연구하는 사람은 적었거든요. 학문이라는 수레에 자료와 이론이라는 두 바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바퀴가 너무 크면 제자리에서 계속 한 방향으로 수레가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론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바퀴인 자료 연구에 매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힘인 실험, 그것이 말인 것보다는 엔진인 것이 더 좋은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어 정보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국어학을 보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있겠죠. 언어 그 자체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언어의 뒷면에 놓인 무언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어사를 하려면 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과 문화의 역사를 모르는데 언어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회언어학을 하려면 사회학도 잘 알아야 할 것이고요.

**권창섭** 선생님의 그런 연구들 덕분에 후학들이 보다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 듯합니다.

**홍윤표** 제 덕이라뇨, 아닙니다.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함께해야 하는 것이지요.

**권창섭** 더불어 후학들에게 알려 주고 싶은 격려와 질타의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윤표** 글썽요. 제가 정답이 아니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동시대에 함께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을 때 내 뒤를 따르라 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 왔을까?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맘이 있어야 그런 질타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후회는 딱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 후학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말도 없고요. 한동안은 연구와 작업들을 억지로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만큼의 재미와 희열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공부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이 더욱 즐겁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었을 것 같네요.

**권창섭**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도움이니 아니니를 떠나 정말 부러움이 들게 하는 말씀이네요. 아쉬움은 없으십니까?

**홍윤표** 계획한 책들을 다 못 내고 있어 아쉽긴 한데 어찌겠어요. 어떻게 바라는 만큼 다 하겠습니까. 제가 다 못하면 누군가가 또 바통을 이어받아 하겠지요.

정년 퇴임식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답시고 했는데 결국 알게 된 것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알고 한 대상에 한 발짝 다가서면 그 대상은 다시 열 발짝 뒤로 달아나더라. 공부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도 전 이 직업과 이 길을 택한 것이 매우 잘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매우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만족합니다.

**권창섭** 선생님께서 젊어 보이시는 비결도 그러한 행복감과 만족감 때문인가 봅니다.

**홍윤표** 제가 젊어 보이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염색하는 겁니다.(웃음)

**권창섭** 그렇군요. 오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홍윤표** 저도 즐거웠습니다.